



여수 김석철



여수 송기홍



영광 서희권



완도 김광수



장성 반정모



장흥 김종민



진도 조상용



함평 김광춘



회순 박순철

# 나주시, 농한기 감자 시설재배 눈길

### 벼 수확 후, 빈 농지 하우스 감자 재배...올해 시범 추진 농지이용률 향상·작부체계 개선 통한 농가소득 창출

벼 수확이 끝난 농한기 빈 농지를 활용한 감자 시설 재배가 전남 나주시지역 농가의 틈새 소득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나주시는 26일, '논 이용 소득작물 재배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겨울철 감자 시설재배가 농지이용률 향상 및 작부체계 개선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지며, 농업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를 중심으로 재배되었던 겨울철 시설 감자는 전국적인 이상 기후 변화에 따른 작목 전환으로 내륙지방에서 감자가 출하되지 않는 3월부터 본격 유통을 시작해, 고소득을 창출하는 효자 작물로 급부상하



고 있는 추세다. 특히 나주 지역은 인근 타 시군에 비해 일조량이 좋고 기온이 높아, 겨울철 감자 재배에 매우 유리

한 기후조건을 갖추고 있다.

보편적으로 '봄 감자'는 3월 경 종자를 심고, 장마 시작 전인 6월 무렵 수확하지만, '시설 감자'는 11월 중에 심어 3월 말 경에 수확한다.

현재 나주시 금천면, 노안면 일대 농가 7곳에서는 벼 수확이 끝난 논에 소형 이동식 하우스를 설치하는 등 본격적인 감자 재배에 나서며 겨울철 틈새시장을 노린, 때 아닌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나주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조생종 벼 재배지의 경우 겨울 감자 재배 수확기를 단축시켜, 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올해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감자재배기술교육 실시하는 등 재배 농가를 확대해 농가의 틈새 소득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회순 너릿재 옛길 자전거 연결도로 개통

회순읍 벌고천 따라 총 연장 968m...자전거 및 보행 겸용

회순 너릿재 옛길(누리길) 자전거 연결도로가 개통됐다. 회순군은 지난 6월 착공한 회순 너릿재 옛길(누리길) 자전거 및 보행자 도로 연결사업을 준공했다.

22일 회순군에 따르면 회순 너릿재 옛길 자전거 및 보행자 도로 연결사업은 8억원(특별교부세 5억원, 군비 3억원)이 투입돼 회순읍 이십곡리 2구 입구에서 교리 IPG 충전소까지 벌고천을 따라 총 연장 968m의 자전거 및 보행 겸용 도로 개설 사업이다.

군은 그동안 국도 확·포장공사(교리C) 시행으로 너릿재 옛길로 가는 일부구간이 단절되고, 이십곡리에서 읍 소재지로 연결하는 보도가 없어, 마을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자전거도로 확충을 위해 너릿재 옛길 도로 연결 사업을 추진했다.

이번에 너릿재 옛길 연결도로가 개통됨으로써 이십곡리 마을 주민의 보행안전은 물론 행정자치부에

## 순천시, 사회적경제 육성시스템 지역경제 활성화 결실

순천시가 협동과 연대를 기반으로 모두가 잘사는 따뜻한 경제성장을 위한 '순천시사회적경제 육성시스템'을 통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가면서 순천시사회적경제의 꽃을 피우고 있다.

28일 순천시에 따르면, 전남도내 자치단체 중 최초로 지난 2015년 사회적경제담당을 신설하고 '순천시 사회적경제 육성시스템' 제정으로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기반을 다졌으며, 12월 현재 사회적기업 30개소, 마을기업 27개소, 협동조합 84개소로 총 141개의 사회적경제 기업을 육성했다는 것.

2017년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로 사회적경제 지표를 찾기 위한 워크숍, 갈등해결을 위한 민주적소통 교육, 사회적 감시양성, 실무자 역량

강화, 전문가 초청 특강, 현장탐방, 이야기마당 등을 실시했다.

사회적경제지표 워크숍은 지역에서 해결해야 할 사회적문제, 가치 등을 점검·토론했으며, 기업과 조직 등 이해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협동의 에너지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민주적 소통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사회적경제 인식을 청소년에게 확산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강사 양성 교육을 실시했으며, 교육 수료자는 순천시교육청과 협의하여 자유학기 진로교육 일환으로 사회 적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기업의 요청에 따라 회계와 노무 등 맞춤형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탐방은 순천지역 모범 기업을 방문하여 사례를 듣고 기업 간 네트워크 형성으로 상생하는 관계를 모색하기

도 했다.

순천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도전을 위한 사전 준비로 기업 맞춤형 컨설팅으로 기업발굴과 육성을 지원해 왔으며,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우수구매 촉진을 유도하고 있다.

올해 1~3차에 걸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및 사업개발비를 지원했으며, 전남도내에서 가장 많은 10개의 신규 기업을 발굴했다.

또 마을 자원 등을 활용한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 자체공모를 통한 순천형 마을기업 8개소와 전남형 7개소, 행정부형 12개소를 지원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기관 성과 평가'에서 사회적기업 발굴, 일자리 창출 제정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성과로 '고용노동부장관상(우수상)'과 전남도에서 실시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공공구매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일자리창출사업 활성화를 위해 올 연간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온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1인당 75만원의 인센티브를 한시적으로 지원했다. 이 사업으로 7개 기업의 근로자 75명이 인센티브 제공을 받게 된다.

착한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역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람이 모여 사람이 됩니다'를 주제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과 생산품, 서비스를 체험하는 나눔의 장을 펼쳤다.

부대행사로 어려운 이웃 주택 신축을 위한 '사랑나눔 바자회'와 건강한 삶을 위한 '함께 걸어 좋은 길' 등과 연계하여 1,000여명의 시민들과 함께했다.

순천=김종영 기자

## 광양시, 문화도시 발전 위한 거버넌스 워크숍



광양시는 문화도시사업단(단장 박

시훈)에서 오는 28일 문화도시 거버넌스 워크숍을 개최하고 문화도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부투나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워크숍은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해 공유하고 시민을 중심으로 문화도시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워크숍에는 문화도시사업단과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협의회를 비롯해 사회 각 분야별 시민, 문화예술인, 전문가, 행정주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워크숍에서는 올해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시민이 제안하는 광양을 공동체 예술활동 프로그램'과 청소년 도시문화탐방, '광양을 예술이 있는 날'의 결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어, '광양읍권 역사문화장소 시

민이야기' 공모전 시상식과 문화도시사업단의 활동사항을 소개하고, '문화도시 광양을 위한 나와 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주제로 조별 원탁토론이 진행된다.

서영동 문화산업팀장은 "올해 추진한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에 대해 많은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인 만큼 이번 워크숍에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광양=김충권 기자

## 빅데이터로 본 순천시 관광 '힐링' 개념

순천시는 연간 방문하는 900만명 관광객의 트렌드를 파악하고 맞춤형 관광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했다.

소셜 빅데이터 분석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순천 관광과 관련된 블로그, 트위터, 뉴스 등 SNS상의 빅데이터 9만8200여건을 추출하여 행정안전부의 빅데이터 분석지원시스템을 통해 자체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순천시는 봄과 가을철에 순천만습지, 낙안읍성 등의 주요 관광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등 계절과 장소에 따라 관광객이 집중되는 관광 트렌드를 알 수 있었으며, 방문객들은 주차 편의를 중요시하며 입장료에도 큰 관심이 있음이 확인됐다.

순천=김승호 기자

# 세계인의 밥상 이제부터 한식입니다

세계적인 한식의 열풍은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과 이에 따른 한식의 위상을 높여 놓았습니다.  
한식의 세계화는 품격높은 한식문화의 조성과 우리음식의 사랑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스스로 한식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올바른 식문화의 정립과 한식의 표준화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한식의 세계화는 이루어 집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